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인식*

권 현 수** · 김 경 화***

A Perception of Parents, Teachers, and Professors about the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won, Hyunsoo** · Kim, Kyeong-Hwa***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professors about the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in order to know the general understandings of stakeholder on SELS and suggest a better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it. **[Method]** A questionnaire obtained from 252 parents, 53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67 special education professors was analyzed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these participants. **[Results]**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 SELS was necessary even though they were rarely aware of it, the SELS subject should include all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der free education by the legislation(from infants to transition program students), and the purpose of the SELS as well as the outcomes of special education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special education oriente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they insisted that the results of the SELS should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make a better policy for special educ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SELS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education and it was necessary to find the ways to reflect the results of SEL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Perceptions, Educational achievements, Application of study results

* 이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종단조사 발전방안 기초연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jong University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kkim@kku.ac.kr)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교육은 미래의 주인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김성식 외, 2007; 류한구 외, 2004).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학 분야의 연구 경향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을 벗어나 종단연구를 통해 학생, 학교, 사회의 변화를 추적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특히 교육 정책 연구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runs & Schuller, 2007).

종단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여 특정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 방법으로서 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성식 외 2007; 이병호, 손웅비, 2017). 미국의 국가교육종단연구나 영국의 영국청소년종단연구, 캐나다의 청소년이행연구 등이 종단조사 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교육 분야의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변화 과정과 같이 단기간에 드러나기 어려운 교육성과 확인, 교육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효과 파악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기반에 근거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종단연구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남궁지영 외, 2018; 성기선 외, 2012; 송승훈, 서현, 2018). 그러나 일반교육 분야에 비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종단조사’가 유일한 종단조사이고 그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가 거의 유일하고 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패널조사’가 2018년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막 시작하는 단계인 정도에 불과하다(강정배 외, 2018; 윤종욱, 김정화, 권현수, 2017).

특수교육 종단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 상태’ 부문을 조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된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특수교육의 교육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 ‘특수교육 종단조사(1)’를 실시하였다(안수경 외, 2014). 특수교육 종단조사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함께 매 3년 주기로 실시되고 ‘2012년 특수교육 종단조사 기초연구’에서 제안한대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패널로 선발하여 이들이 만 30세가 되는 때까지 진행하며 장애학생의 학교장, 담당교사, 보호자 설문을 통해 장애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중단조사의 목적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와 학교 졸업 후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교육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구로 '2009년 특수교육 교육성과 평가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전 학령기 특수교육 주요 교육성과 목록'을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투입-과정-산출 지표로 구성된 성과 모형을 적용하였다(안수경 외, 2014).

지금까지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두 차례 실시되었다. 첫 조사는 2014년에 이루어졌고 3년 후인 2017년 특수교육 중단조사(II)에서는 1차 년도에 참여했던 패널을 대상으로 투입과 과정지표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산출지표인 학생의 개인역량과 가족역량, 사회적 통합, 행동문제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윤종욱, 김경화, 권현수, 2017).

그러나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법적 필요성에 의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되면서 사전 준비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안수경 외, 2014). 일반교육 분야에 비해 모집단 규모가 작고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교육의 특성상 표본 추출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하며 다른 중단조사와 달리 3년 주기로 시행되어 패널 관리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특수교육의 교육성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학업적 성취가 강조되었고, 일반교육 분야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조사 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안수경 외, 2014).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에 비해 즉각적인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이소현, 박은혜, 2011). 따라서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패널을 구성하고 학업적 성취 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행동기술 등 특수교육적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역량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가 미흡했다는 사실은 특수교육 중단조사가 조사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와 연관시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의 중단조사의 장점 중 하나는 오랫동안 축적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교육의 경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선혜연, 황매향, 정애경, 2011; 전경남, 2019; 조현철, 2011),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효과 검증(설진배, 2018; 최지영, 김재철, 2015),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한 학업성취의 차이 비교(김진경, 2019; 이유정, 오성배,

2016) 등 중단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경우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일반교육의 중단연구와 달리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조사 결과의 활용도도 미흡하여 앞으로 중단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권현수, 김경화, 오영석, 2018).

따라서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중단조사의 필요성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조사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와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특수교육 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일반교육의 중단조사와 비교해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특징적인 요소이자 설계의 기본이 되는 조사대상, 실시 목적, 교육성과, 결과 활용방안 측면에서 현재의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가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조사 내용이나 활용 방안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학부모와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바람직한 특수교육 중단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이해정도와 필요성에 대한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인식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 중단조사 조사대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 중단조사 실시 목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 중단조사에서의 교육성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 중단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인 특수교사, 그리고 전국의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과의 교수이다. 이 중 학부모와 특수교사는 ‘2019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500명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 253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252명의 학부모와 53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의 경우,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목록에 나와 있는 대학 및 학과(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학과는 포함하나 특수체육학과는 제외)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전공이 교육학일 경우에는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특수교육 전공 교수이면서 직급이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수일 경우에는 포함하였다. 전체 245명의 특수교육 전공 교수 중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의 수는 67명이었으며, 설문지에 응답한 연구대상들의 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Survey N(%)

Variables		Parents (N = 252)	Teachers (N = 53)	Professors (N = 67)
Gender	male	12 (4.8)	10 (18.9)	34 (50.7)
	female	240 (95.2)	43 (81.1)	33 (49.3)
Ages	20's	0 (0.0)	7 (13.2)	0 (0.0)
	30's	105 (41.7)	15 (28.3)	5 (7.5)
	40's	142 (56.3)	18 (34.0)	17 (25.4)
	over 50's	5 (2.0)	13 (24.5)	45 (67.2)
Experiences	less than 5 years		9 (17.0)	2 (3.0)
	6-10 years		11 (20.8)	8 (11.9)
	11-15 years		8 (15.1)	11 (16.4)
	16-20 years		13 (24.5)	13 (19.4)
	over 21 years		12 (22.6)	33 (49.3)
School levels	kindergarten	48 (19.0)	7 (13.2)	
	elementary	129 (51.2)	27 (50.9)	
	middle	50 (19.8)	11 (20.8)	
	high	25 (9.9)	8 (15.1)	
Placement	special school	56 (22.2)	30 (56.6)	
	special class	196 (77.8)	23 (43.4)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종단조사 관련 연구(김경희 외, 2016; 김경희 외, 2018; 김성식 외, 2007; 안수경 외, 2009)와 교육성과에 관한 선행연구(김경희, 2017; 이미선 외, 2010; 정현우, 정동영, 2016)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제작한 후, 특수교육 전공 교수 2인과 종단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받아 문장이 어색한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충 설명을 추가(예: 학령기(초등, 중학, 고등))하여 확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필요성을 묻는 2문항과 일반교육의 종단조사와 구분되는 특수교육 종단조사의 특징적인 요소인 조사대상, 실시 목적, 특수교육의 교육성과,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22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필요성을 묻는 문항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공 교수에게만 질문하였고 그 외 질문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은 1= 전혀 모른다, 2= 약간 알고 있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로 답하도록 하였고, 종단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동의 정도에 대해서는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동의하지 않음,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항 신뢰도는 문항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85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Table 2> Survey questions

Parts	Example of questions	Number of questions
Understanding about the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 To what extent do you know about the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1
Necessity of SELS	- To what extent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do the SELS?	1
Subject of SELS	- Subject of SELS should include only students of compulsory education.	3
Purpose of SELS	- The purpose of SELS is to know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living status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fter graduation based on the law. - The purpose of SELS is to know the influences of the policy.	6

<Table 2> Survey questions (continued)

Parts	Example of questions	Number of questions
Educational achievement in special education	- Educational achievement means meaningful changes resulted from the educational curriculum. - Special education's outcomes should consider the types of disabilities.	9
Application plan for SELS	- The results of SELS should applied to improve the law, policy and systems.	4
Total		24

3. 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9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에게 조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한 후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기간 중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500명 중 252명이 참여하여 약 50.4%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수교사 대상의 설문조사는 예비조사가 인터넷 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비조사 기간 동안 특수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온라인 설문 링크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 설문 참여를 요청한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설문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기간 중 2019년 6월 24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3부가 수집되었다. 이는 전체 예비조사 대상자 250명 중 21.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응답자 중 불성실하거나 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므로 모두 분석 대상이 되었다.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의 경우에는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실린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학교와 학과명을 토대로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수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한 후, 이메일을 보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보내 인터넷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확인된 특수교육 전공 교수는 총 245명이었으며, 설문 응답한 교수는 70명이었다. 응답자 중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7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응답률은 약 27.3%이었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값을 구하였다. 집단 간 비교는 t 검정과 ANOVA 방법으로 평균값을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결과 :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이해정도와 필요성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이해정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전공 교수에게만 질문하였다. 이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해 다루는 입장이고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종단조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보다 약간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 전공 교수에 비해 종단조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3.02, p<.01$). 그러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공 교수 모두 압도적으로 종단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현장에서 종단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이해정도와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Understanding and necessity of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N(%)

Level of understanding	subjects	not at all	rarely know	know	very well	M	SD	t(p)
To what extent do you know about SELS??	T	11 (20.8)	27 (50.9)	12 (22.6)	3 (5.7)	2.13	.81	3.02** (.003)
	P	7 (10.4)	24 (35.8)	24 (35.8)	12 (17.9)	2.61	.90	
Level of necessity	subjects	not at all	not necessary	necessary	very necessary	M	SD	t(p)
To what extent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do SELS??	T	0 (0.0)	1 (1.9)	38 (71.7)	14 (26.4)	3.25	.48	2.30* (.023)
	P	0 (0.0)	2 (3.0)	32 (47.8)	33 (49.3)	3.46	.56	

T: teachers, P: professors, * $p<.05$, ** $p<.01$

2. 연구결과 :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인식

1) 특수교육 종단조사 조사대상

설문조사에서 특수교육 종단조사의 조사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무상교육 대상자

(유아부터 전공과까지)가 포함되는 수준에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었고 특수교사나 특수교육 전공 교수에 비해 학부모의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종단조사 대상인 학령기(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만 대상을 국한하는 것에 대해 가장 동의 정도가 낮았고, 특히 특수교사의 경우 73.6%,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경우 74.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 졸업 이후까지 포함해야 한다’, ‘학령기 이후 초기 성인기 성과를 포함해야 종단적 성과 가능성이 가능하다’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Subject of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M(%)

Questions	subjec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	SD	F(p)
Subject of SELS should include only school age students with disabilities(elementary to high school)	S	4 (1.6)	18 (7.1)	168 (66.7)	62 (24.6)	3.21	.88	58.36*** (.000) S > T, P
	T	7 (13.2)	32 (60.4)	11 (20.8)	3 (5.7)	2.19	.74	
	P	8 (11.9)	42 (62.7)	11 (16.4)	6 (9.0)	2.22	.77	
Subject of SELS should include only students of compulsory education(kindergarten to high school).	S	2 (.8)	15 (6.0)	152 (60.3)	83 (32.9)	3.30	.79	45.54*** (.000) S > T, P
	T	4 (7.5)	25 (47.2)	19 (35.8)	5 (9.4)	2.47	.77	
	P	3 (4.5)	37 (55.2)	19 (28.4)	8 (11.9)	2.48	.76	
Subject of SELS should include only students of free education(infant to transition program).	S	0 (0.0)	13 (5.2)	147 (58.3)	92 (36.5)	3.36	.76	4.80** (.009) S > T
	T	1 (1.9)	10 (18.9)	29 (54.7)	13 (24.5)	3.02	.72	
	P	0 (0.0)	6 (9.0)	35 (52.2)	26 (38.8)	3.30	.64	

S: student's parents, T: teachers, P: professors, ** $p < .01$, *** $p < .001$

2) 특수교육 종단조사 실시 목적

기존에 특수교육 종단조사의 실시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적 필요성이외에 다양한 실시 목적을 제시하고 학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M= 3.29, SD= .61)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M= 3.36, SD= .62)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M= 3.36, SD= .59) 이라는데 가장 많은 동의를 하였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M= 3.39, SD= .58)이라는데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특수교육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교육 중단조사를 실시한 다는데 특수교사나 특수교육 전공 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동의를 나타내었고($F=7.57, p<.01$),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라는데 특수교사에 비해 높은 동의수준을 보여주었다($F=9.02, p<.001$).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기타 의견으로 ‘일반교육도 그렇지만 특수교육은 학교에 너무 많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지역사회 연계 교육성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급 교육과정의 목표 성취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목적이 합리성을 가지 려면 학교급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실시 목적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5>와 같다.

<Table 5> Purpose of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M(%)

Questions	subjec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	SD	F(p)
The purpose of SELS is to know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living statues after graduation, based on the law.	S	0 (0.0)	16 (6.3)	176 (69.8)	60 (23.8)	3.17	.52	.25 (.777)
	T	0 (0.0)	5 (9.4)	32 (60.4)	16 (30.2)	3.21	.60	
	P	1 (1.5)	3 (4.5)	43 (64.2)	20 (29.9)	3.22	.60	
The purpose of SELS is to know the effect of the policy.	S	0 (0.0)	12 (4.8)	177 (70.2)	63 (25.0)	3.20	.51	7.57** (.001) S > T, P
	T	1 (1.9)	8 (15.1)	35 (66.0)	9 (17.0)	2.98	.64	
	P	0 (0.0)	14 (20.9)	42 (62.7)	11 (16.4)	2.96	.61	
The purpose of SELS is to know whether the educational goals in curriculum achieved or not.	S	0 (0.0)	15 (6.0)	177 (70.2)	60 (23.8)	3.18	.52	9.02*** (.000) S > T
	T	2 (3.8)	11 (20.8)	33 (62.3)	7 (13.2)	2.85	.69	
	P	0 (0.0)	11 (16.4)	45 (67.2)	11 (16.4)	3.00	.57	
The purpose of SELS is to know whethe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n an individual, school, and national level achieved or not.	S	0 (0.0)	12 (4.8)	170 (67.5)	70 (27.8)	3.23	.52	.47 (.624)
	T	0 (0.0)	5 (9.4)	35 (66.0)	13 (24.5)	3.15	.57	
	P	0 (0.0)	6 (9.0)	41 (61.2)	20 (29.9)	3.21	.59	
The purpose of SELS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	S	0 (0.0)	11 (4.4)	175 (69.4)	66 (26.2)	3.24	.63	1.70 (.185)
	T	0 (0.0)	3 (5.7)	28 (52.8)	22 (41.5)	3.36	.59	
	P	0 (0.0)	3 (4.5)	36 (53.7)	28 (41.8)	3.37	.57	
The purpose of SELS is to support the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quality of life .	S	0 (0.0)	5 (2.0)	175 (69.4)	72 (28.6)	3.29	.61	.85 (.428)
	T	0 (0.0)	4 (7.5)	26 (49.1)	23 (43.4)	3.36	.62	
	P	0 (0.0)	3 (4.5)	35 (52.2)	29 (43.3)	3.39	.58	

S: student's parents, T: teachers, P: professors, ** $p<.01$, *** $p<.001$

3) 특수교육에서의 교육성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육에서의 교육성과에 대해 정의내리고 이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의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나타난 개별 학생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특수교육의 교육성과라고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M=3.33, SD=.53$)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공 교수는 모두 ‘교육성과란 학습적인 성과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한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이라는데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M=3.47, SD=.58; M=3.52, SD=.61$). 개인 및 가정의 노력이나 영향보다는 학교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태도, 혹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교육성과라는 의견에는 교사나 교수에 비해 학부모의 동의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F=34.90, p<.001$), 학습적인 성과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한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이 교육성과라는 의견에는 학부모보다 교수의 동의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F=4.58, p<.05$).

특수교육에서의 교육성과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배치유형보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경도, 중도)를 더 고려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정도(경도, 중도)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특수교사의 동의정도가 학부모나 특수교육 전공 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고($F=3.88, p<.01$) 배치 유형을 고려해야한다는 응답에서는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부모나 특수교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7.41, p<.001$).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기타 의견으로 ‘특수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데에 따라 교육성과가 다르다. 특히 지적장애아 교육의 성과는 일반교육성과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정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 중심의 교육성과만을 고려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6>과 같다.

<Table 6> Educational achievement in special education M(%)

Questions	subjec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	SD	F(p)
Educational achievement means meaningful changes that based on school curriculum.	S	0 (0.0)	9 (3.6)	175 (69.5)	68 (27.0)	3.28	.72	.32 (.729)
	T	0 (0.0)	5 (9.4)	32 (60.4)	16 (30.2)	3.21	.60	
	P	0 (0.0)	5 (7.5)	41 (61.2)	21 (31.3)	3.24	.58	

<Table 6> Educational achievement in special education (continued) M(%)

Questions	subjec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	SD	F(p)
Educational achievement means individual student's intellectual, social, emotional, and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 that based on school education.	S	0 (0.0)	7 (2.8)	154 (61.1)	91 (36.1)	3.33	.53	.01 (.994)
	T	0 (0.0)	1 (1.9)	33 (62.3)	19 (35.8)	3.34	.52	
	P	0 (0.0)	4 (6.0)	37 (55.2)	26 (38.8)	3.33	.58	
Educational achievement means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positive changes in capability, attitude and behavior through the school education rather than individual/parent's efforts.	S	1 (.4)	13 (5.2)	157 (62.3)	81 (32.1)	3.29	.67	34.90*** (.000) S > T, P
	T	6 (11.3)	22 (41.5)	17 (32.1)	3 (5.7)	2.51	.89	
	P	2 (3.0)	26 (38.8)	28 (41.8)	11 (16.4)	2.72	.77	
Educational achievement should based on moral human beings, and produced valued outcomes for person, society and nations.	S	0 (0.0)	6 (2.4)	175 (69.4)	71 (28.2)	3.26	.49	1.05 (.352)
	T	1 (1.9)	2 (3.8)	36 (67.9)	14 (26.4)	3.19	.59	
	P	0 (0.0)	7 (10.4)	42 (62.7)	18 (26.9)	3.16	.61	
Educational achievement means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s and independent living skills as well as academic performance.	S	0 (0.0)	13 (5.2)	148 (58.7)	91 (36.1)	3.31	.56	4.58* (.011) P > S
	T	0 (0.0)	2 (3.8)	24 (45.3)	27 (50.9)	3.47	.58	
	P	1 (1.5)	1 (1.5)	27 (40.3)	38 (56.7)	3.52	.61	
Special education's achievement should consider the types of disabilities.	S	0 (0.0)	12 (4.8)	124 (49.2)	116 (46.0)	3.41	.58	2.24 (.108)
	T	0 (0.0)	1 (1.9)	21 (39.6)	31 (58.5)	3.57	.54	
	P	2 (3.0)	7 (10.4)	25 (37.3)	33 (49.3)	3.33	.78	
Special education's achievement should consider the severity of disabilities(moderate, severe).	S	0 (0.0)	7 (2.8)	147 (58.3)	98 (38.9)	3.36	.54	3.88* (0.022) T > S, P
	T	0 (0.0)	0 (0)	22 (41.5)	31 (58.5)	3.59	.50	
	P	2 (3.0)	3 (4.5)	33 (49.3)	29 (43.3)	3.33	.70	
Special education's achievement should consider the placement of education(special school, special classroom in general school, general classroom in general school).	S	0 (0.0)	1 (.4)	167 (66.3)	84 (33.3)	3.33	.48	17.41*** (.000) S,T > P
	T	0 (0.0)	3 (5.7)	21 (39.6)	29 (54.7)	3.49	.61	
	P	4 (6.0)	17 (25.4)	27 (40.3)	19 (28.4)	2.91	.88	

S: student's parents, T: teachers, P: professors, * $p < .05$, *** $p < .001$

4)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결과 활용방안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특수교육 중단조사 결과는 법이나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가장 동의 수준이 높았다($M=3.32, SD=.52$; $M=3.42, SD=.57$; $M=3.49, SD=.53$). 그 외 다른 문항에 대해서도 평균 3.0 이상의 높은 동의를 나타내어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결과를 보였고,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의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평생교육, 지역 사회 기반 교육 등과 연계된 활용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Table 7> Application plans for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M(%)

Questions	subjec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	SD	F(p)
The results of SELS should applied to improve the law, policy and systems	S	0 (0.0)	6 (2.4)	159 (63.1)	87 (34.5)	3.32	.52	3.06 (.048)
	T	0 (0.0)	2 (3.8)	27 (50.9)	24 (45.3)	3.42	.57	
	P	0 (0.0)	1 (1.5)	32 (47.8)	34 (50.7)	3.49	.53	
The results of SELS should applied to improve the curriculum.	S	0 (0.0)	6 (2.4)	171 (67.9)	75 (29.8)	3.27	.50	2.91 (.056)
	T	0 (0.0)	1 (1.9)	31 (58.5)	21 (39.6)	3.38	.53	
	P	0 (0.0)	3 (4.5)	32 (47.8)	32 (47.8)	3.43	.58	
The results of SELS should applied to improve the social attitude and fight for discrimination.	S	0 (0.0)	6 (2.4)	185 (73.4)	61 (24.2)	3.22	.47	.73 (.483)
	T	0 (0.0)	1 (1.9)	35 (66.0)	17 (32.1)	3.30	.50	
	P	1 (1.5)	4 (6.0)	38 (56.7)	24 (35.8)	3.27	.64	

S: student's parents, T: teachers, P: professors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와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단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와 교수 모두 특수교육 분야에서 중단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었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응답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특수교육 중단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지만 중단조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8.3%에 불과했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단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중단조사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게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잘 모른다는 인식은 지원이 부족하고 홍보가 되지 못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결과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고려하면(권현수, 2012; 박은혜, 이대식, 진창원, 2016) 홍보 등을 통해 인식을 넓히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패널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현재의 특수교육 중단조사 조사대상인 학령기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특수교육 무상교육 대상자인 영유아에서부터 전공과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 아동발달이나 교육에서 유아기의 중요성, 특히 특수교육에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특수교육 중단조사에서 유아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김유진, 이영애, 권정윤, 2019; 이소현, 2005). 즉,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조사대상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만 3세부터 전공과 이수 대상자까지 특수교육서비스를 받는 모든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모집단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가 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대상의 추출이 연구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성태제, 시기자, 2014)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 등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안수경 외, 2014). 다만, 고등학교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전공과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특수교육에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에는 만 3세부터 만 7세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권현수, 김경화, 오영석, 2018).

셋째,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실시 목적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현재의 조사 목적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실시 목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8조 1항 여섯 번째 부문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와 졸업 후의 생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특수교육 중단조사에서는 학업적 성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성과에 해당하는 산출지표와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교육 중단조사의 성과 모형을 따른 결과이다(안수경 외, 2014; 윤중옥, 김경화, 권현수, 2017). 이에 반해 본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중단조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동일하게 선행연구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 후 자립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특수교육의 가장 큰 성과임이 강조되고 있다(안수경 외, 2009). 따라서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실시 목적은 단순히 교육을 통한 학업적 성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김성애, 2013; Hornby, 2015; Smith, et al., 2016).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2018년부터 초, 중학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교실 2교사제를 실시하는 등 일반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과 같은 학교 현장의 모습도 달라지는 추세이다(노선옥, 우이구, 2016; 손지영, 차현진, 2019; 이국정, 이상수, 2014; 이대식, 손승현, 정광조, 2019).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중단조사가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과 구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박은혜, 이대식, 진창원, 2016; 정현우, 정동영, 2016). 또한, 졸업 후 생활 상태에 관한 질문들도 취업과 진학이외에 평생교육 등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는 현실(김경화, 2018; 서선진, 2010; 윤지현, 김호연, 김두영, 2016; 정윤우, 2012)을 반영하여 중단조사의 실시 목적인 교육성과와 졸업 후 생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교육에서의 교육성과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균형 잡힌 발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일반교육과는 차별화되는 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수교육이 단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적인 부분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와 연계되어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고 변화를 이끄는 것임을 고려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감과 만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박은혜, 이대식, 진창원, 2016).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태도, 행동의 변화가 학교교육의 성과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던 것도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역량이나 태도, 행동이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이소현, 박은혜, 2011).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의 실시 목적에 대해 학업적 성취와 같은 교육성과 확인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한다고 답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현우, 정동영(2016)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교육성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즉, 일반학생과 달리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학교와 교사 특성과 같이 학생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정현우, 정동영, 2016). 안수경 외(2009)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고 졸업 전에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성과인 교육성과는 미래의 성공적 삶을 위한 핵심 역량이며 여기에는 참여증진, 환경 변화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특수교육의 교육성과는 전통적인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기술 습득 이외에 의도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개인이 성취한 모든 바람직한 변화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의 특수교육은 ‘장애’라는 개념 대신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특수교육’ 대신 ‘특별한 지원’, ‘개별화 지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허승준, 2019). 따라서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확인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법,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고 교육을 실천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해 알리고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현우, 정동영(2016)은 특수교육의 교육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해 안내하고 중단조사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은 특수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반교사, 행정가, 학부모,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적 팀에 의한 접근이 필수적이다(권현수, 2010, 2012; 김은하 외, 2019; 김태영, 2012). 따라서 특수교육 분야 뿐 아니라 일반교육, 교육행정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특수교육 중단조사를 쉽게 접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이나 이해 정도가 교사에 비해 낮다(박은혜, 이대식, 진창원 2016; 안수경 외, 2014)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특수교육의 수혜자인 부모와 가족이 교육의 효과를 실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중단조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실시 목적은 법적으로 명시된 교육성과와 졸업 후 생활 상태 확인 뿐 아니라 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균형 잡힌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이나 졸업 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문항이나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모형과 조사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어떤 교육을 받은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행동적 성취가 높았는지, 어떤 정책이 학생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심층 보고서 작성을 가능케 함으

로써 후속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에서 특수교육 중단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편리한 접근과 사용을 위해 중단조사 결과를 소책자나 요약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수교사 뿐 아니라, 특수교육 교육성과에 관심이 있는 보호자, 교사, 연구자, 행정가 등을 위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팸플릿 형태의 유인물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성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 중단조사 데이터를 통해 중단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단연구는 연구적 가치가 높고 매우 필요하지만 개인 연구자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특수교육 중단조사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 검증이나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면 중단조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중단조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와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교육과 구분 되는 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중단조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중단조사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와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실제적인 의견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응답률도 낮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집단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중단조사의 패널 구성이나 조사 설계, 모형, 조사 도구, 조사내용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 중단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제한된 패널을 대상으로 이제 두 차례 실시한 상황이다. 전체 학생의 6.8%에 불과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더구나 특수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제한된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중단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

중단조사 데이터 축적과 이를 활용한 정책적 방향 제시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특수교육 중단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단조사 시행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이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n, S. K., Kim, D. I., Kim, H. J., Shin, H. K., & Ryu, J. Y. (2009). *A study on special edu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nventories of critical performance perceived by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field*. Chungnam: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안수경, 김동일, 김현진, 신현기, 유재연 (2009). **특수교육 교육성과 평가 방안 연구: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지각하는 핵심 교육성과 목록**.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An, S. K., Kim, S. S., Kim, H. J., Park, J. Y., Choi, J. G., & Shin, D. Y. (2014).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I)*. Chungnam: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안수경, 김성식, 김호진, 박지연, 최종근, 신동인 (2014). **특수교육 중단조사 (I)**.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Bruns, T., & Schuller, T. (2007). The evidence agenda, In OECD (ed.). *Evidence in Education: Linking Research and Policy*. France, Paris: OECD.
- Cho, H. C. (2011). The effects of academic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good orientation, self-perfection, implicit theory of intellig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learning attitude, behavior and outcom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1), 33-60.
- [조현철 (2011). 내외적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목표지향, 자기지각, 지능관 및 자기조절학습 전략 요인들의 학습태도,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 **교육심리연구, 25**(1), 33-60.]
- Choi, J. Y., & Kim, J. C. (2015). Explor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389-411.
- [최지영, 김재철 (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Hornby, G. (2015). Inclusive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of a new theory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and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2*(3), 234-256.
- Hur, S. J. (2019). Difference and educational justice: Reforming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equitable educational support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4*(3), 1-18.

- [허승준 (2019). 차이와 교육 정의: 차이에 공평한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체제 개혁. *특수교육학연구*, 54(3), 1-18.]
- Jeon, K. N.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effort of gifted and general students on the relation of academic self-concept to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9(1), 83-101.
- [전경남 (2019). 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미치는 학업 노력의 매개효과. *영재교육연구*, 29(1), 83-101.]
- Jeong, H. W., & Chung, D. Y. (2016). Effects of teacher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the educational outcome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9(3), 101-126.
- [정현우, 정동영 (2016). 교사와 학교 특성이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9(3), 101-126.]
- Jung, Y. W. (2012). Analysis of special teacher's perception of guidance on college entrance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special needs and effective variables on the student's determination of college entranc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3(1), 231-232.
- [정윤우 (2012).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대학진학지도에 대한 특수교육교사의 인식과 대학 진학 결정 영향 변인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213-232.]
- Kang, J. B., Kim, D., G., Oh, M. A., Yoon, S. Y., Choi, H. S., Kim, M., Kim, H. J., & Kim, T. Y. (2018). *Pilot study of disability panel survey*. 18-04. Seoul: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강정배, 김동기, 오미애, 윤상용, 최현수, 김민, 김현지, 김태용 (2018). **장애인패널 예비조사**. 정책 18-04.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Kim, E., Choi, S., Song, S., & Kang, C. (2019).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experts on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IEP.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4), 1-27.
- [김은하, 최승숙, 송승민, 강창욱 (2019).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3(4), 1-27.]
- Kim, J. K. (2019).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s on academic achievement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variation of the effects among subjects and school level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김진경 (2019).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정배경 영향의 교과별 차이와 학교급별 작용 시차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Kim, K. H. (2017). *A study about longitudinal survey design for exam the school educational achievement*. ORM 2017-31-4 Seoul: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김경희 (2017). **학교교육 성과 점검을 위한 중단조사 설계 방안 탐색**. 연구자료 ORM 2017-31-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Kim, K. H. (2018). The examination of participants'satisfaction with the college preparation e-mentor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2(4), 209-228.

- [김경화 (2018). 대학 진학 준비 e-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2(4), 209-228.]
- Kim, K. H., Kang, M. K., Kim, S. S., Park, E. A., Ban, J. C., Song, M. Y., Lee, M. A., & Han, H. J. (2016). *KICE longitudinal survey system construction plan for school educational achievement*. ORM 2016-26-7 Seoul: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김경희, 강민경, 김성식, 박은아, 반재천, 송미영, 이명애, 한혜정 (2016). **KICE 초중등 학교교육 성과 종단연구 체계 구축 방안**. ORM 2016-26-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Kim, K. H., Kim, W. S., Choi, I. B., Kim, K. G., Park, J. H., Do, S. E., Kim, S. H., & Kim, J. Y. (2018). *A basic research on the longitudinal survey for Korea school educational achievement(II)*. RRE 2018-12 Seoul: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김경희, 김완수, 최인봉, 김광규, 박준홍, 도승이, 김선희, 김지영 (2018). **한국 초중등 학교 교육 성과 종단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 RRE 2018-1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Kim, S. (2013). A study on institutional system reforms for improvement of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2), 1-18.
- [김성애 (2013). 통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8(2), 1-18.]
- Kim, S. S., Kim, Y. B., Kang, S. J., Kim, H. C., & Shin, J. H. (2007).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III): Summary report*.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성식, 김양분, 강상진, 김현철, 신중호 (2007).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III): 조사개요 보고서**. 연구보고 RR-2007-2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Kim, T. (2012).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collaboration with famil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professional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3(4), 1-26.
- [김태영 (2012).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들의 가족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1-26.]
- Kim, Y. J., Lee, Y. A., & Kwon, J. Y. (2019).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inclusiv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during 2008-2018.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1), 187-219.
- [김유진, 이영애, 권정윤 (2019). 공,사립 유치원 장애 유아 통합 교육 연구 동향 분석: 2008~2018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9(1), 187-219.]
- Kwon, H. (2010). A research review of collaboration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general education teacher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441-468.
- [권현수 (2010).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에 관한 연구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441-468.]
- Kwon, H. (2012). Secondary gener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about classroom management and instructional adaptations in inclusive classroom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3(2), 199-223.

- [권현수 (2012). 중등 일반교사의 통합학급 수업과 교수적 수정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2), 199-223.]
- Kwon, H., Kim, K. H., & Oh, Y. (2018). Student capability, social inclusion, and behavioral problems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A comparison of longitudinal data (2014 vs. 2017). *Special Education Research*, 17(3), 29-58.
- [권현수, 김경화, 오영석 (2018).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생 역량, 사회적 통합, 행동문제에 대한 2014년과 2017년 종단조사 결과 비교. **특수교육**, 17(3), 29-58.]
- Lee, B., & Son, W. (2017). Designing a longitudinal survey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 case study. *GRI Review*, 19(3), 1-23.
- [이병호, 손용비 (2017).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종단 조사 설계 연구-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9(3), 1-23.]
- Lee, D., Son, S., & Jung, K. (2019).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peci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upport in general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2019 Autumn Conference Reports*, 3-25.
- [이대식, 손승현, 정광조 (2019).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등 일반학급 내 특별지원 요구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의 역할과 정체성. **한국특수교육학회 2019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3-25.]
- Lee, G., & Lee, S. (2014). An study for role and design direction on the digital textbook for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4), 317-336.
- [이국정, 이상수 (2014).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에 기초한 특수교육용 e 교과서 설계 원리 개발. **특수교육학연구**, 48(4), 317-336.]
- Lee, M. S., Kang, Y. T., Kim, H. J., An, S. K., Ryu, J. Y., Lee, Y. S., & Lee, J. S.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s for surveying current status in the educational outcom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hungnam: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이미선, 강영택, 김현진, 안수경, 유재연, 이영숙, 이준석 (2010).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성과 실태조사 도구 개발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Lee, S. (2005). National policy issues in facilitating inclus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6), 277-305.
- [이소현 (2005). 장애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고찰. **유아교육연구**, 25(6), 277-305.]
- Lee, S., & Park, E. H. (2011).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in inclusive settings*. Seoul: Hakjisa.
- [이소현, 박은혜 (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Lee, Y. J., & Oh, S. B.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status and mitigation method in academic achievement gaps among region. *Korean Education Inquiry*, 34(1), 93-114.
- [이유정, 오성배 (2016).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4(1), 93-114.]
- Namgung, J., Kim, H., Park, K., Song, S., Kim, Y., Chung, M., & Choi, Y. (2018).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XI): Summary report*. TR 2018-138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남궁지영, 김혜자, 박경호, 송승원, 김양분, 정민주, 최유리 (2018).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XI): 조사개요보고서**. TR 2018-13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Park, E. H., Lee, D. S., & Jin, C. W. (2016).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on government's inclusive education polic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 101-128.
- [박은혜, 이대식, 진창원 (2016). 한국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 학교 관리자, 학부모 인식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51**(1), 101-128.]
- Rho, S., & Woo, Y. (2016). The status and future agenda of smart learning support polic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Korea.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8*(4), 201-225.
- [노선옥, 우이구 (2016). 한국의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특수아동교육연구, 18**(4), 201-225.]
- Ryu, H. G., Kim, Y. B., Kang, S. J., & Namgung J. Y. (2004). A model design for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RR 2004-4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류한구, 김양분, 강상진, 남궁지영 (2004). **국가수준의 중단적 교육 조사 모형 개발**. RR 2004-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Seo, S. (2010). A study of examining the transition-adjustment experiences of five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4*(1), 31-53.
- [서선진 (2010).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전화-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장애 대학생들의 대학입시준비 및 대학적응경험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4**(1), 31-53.]
- Seon, H.Y., Hwang, M. H., & Jung, A.K.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2*(1), 21-43.
- [선혜연, 황매향, 정애경 (2011). 부모의 관여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1), 21-43.]
- Smith, T. E. C., Polloway, E. A., Doughty, T. T., Patton, J. R., & Dowdy, C. A. (2016). *Teach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inclusive settings* (7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 Son, J., & Cha, H. (2019). Analysis of digital textbooks and the improvement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digital textbooks from th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4), 213-240.
- [손지영, 차현진 (2019). 보편적 학습설계 원리의 관점에서 디지털교과서 분석 및 개발 과정의 개선방안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3**(4), 213-240.]
- Song, S. H., & Seo, H. (2018). *Jeonnam Education Longitude Study 1st year summary and item development*. Jeonnam: Jeonnam Institute of Educational Policy.
- [송승훈, 서현 (2018). **전남교육중단연구 1차년도 조사개요 및 문항설계**. 전남교육정책연구소.]
- Sul, J. B. (2018).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migrant and domestic backgrounds in South Korea: Towards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9*(1), 307-331.

- [설진배 (2018).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9(1), 307-331.]
- Sung, K. S., Kim, J. Y., Park, S. Y., & Min, B. C. (2012). *A study about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design and item development*. Gyeonggi: Korea Education Research Network.
- [성기선, 김준엽, 박소영, 민병철 (2012). 경기교육종단연구 연구설계 및 문항개발 연구. 경기: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 Sung, T. J., & Si, G. J. (2014).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sa.
- [성태제, 시기자 (2014).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Yoon, J. H., Kim, H., & Kim, D. (2016). An analysis of th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cognized by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1), 129-151.
- [윤지현, 김호연, 김두영 (2016). 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 인식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1(1), 129-151.]
- Yoon, J., Kim, K. H., & Kwon, H. (2017).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III)*. Chungnam: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윤종욱, 김경화, 권현수 (2017). *특수교육 종단조사 (III)*.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국문 초록>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인식

권 현 수 · 김 경 화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의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방법]** 경기도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252명과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53명, 그리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 67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종단조사의 필요성, 조사대상, 실시 목적, 특수교육의 교육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결과를 빈도분석과 t검정,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특수교육 종단조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은 무상교육 대상인 영유아부터 전공과까지를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교육 종단조사의 실시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특수교육의 교육성과는 일반교육과 차별화하여 학업 성취 이외의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종단조사 결과는 법,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특수교육 종단조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특수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종단조사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특수교육 종단조사, 인식, 교육성과, 조사결과의 활용

논문 접수(Received): 2020. 02. 11. / 심사 시작(Examined): 2020. 02. 11. / 게재 확정(Accepted): 2020. 03. 09.